구역성경공부 교재
2014. 11. 21(금)

성경의 역사 3.

■ **본문**
시 12:6

■ **시작 찬송가**
199, 210, 563장
(통234, 245, 장)

■ **헌금 찬송가**
288, 301, 338장
(통204, 460, 364장)

1. 구약의 형성

a. 포로기간 이후에 이루어짐 (스1:1-4)

-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b. 여호사밧 왕이 율법을 교육하게 함 (대하 17:6-9)

c. 요시야 왕 때에 언약을 따름 (대하 34:32)

-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d. 에스라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침 (느 8:1-3)

본문에서 다윗은 성경의 흠이 없고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신구약 66권은, 성경 스스로 교회로 하여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교회가 규정한 것은 '외적인 기준'보다도, 정경 스스로 지니고 있는 신적 권위를 교회가 공인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교회가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2: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1. 구약 정경의 기준

구약 39권은 주전 5세기경 유대인들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90년경 유대교의 얌니야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약 39권을 구약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1) 하나님께 진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모든 구약성경의 기자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로 유대 민족에게 인정받았으며,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렘 1: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암 3: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2)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증거가 있는 책들입니다.

구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에도, 또 수많은 전쟁과 대격변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파괴당하거나 상실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해사본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여러사본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3)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눅24:27)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인용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아벨로부터 역대기의 사가랴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성서를 인정하셨습니다.

마 23: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2. 신약 정경의 기준

신약성경은 주후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원을 받은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엡3:5)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들 이외에 쓴 책들은 성경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조 엡3:1-4)다만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마가와 같이 사도들의 직제자들이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들도 성경(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 내용이 진실한 책들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거짓 성경' 들이 나돌았습니다. 즉 사도들의 이름을 교묘히 도용하여 거짓교리들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마리아 승천기' 라는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마리아' 가 승천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와 같은 위경(僞經)들을 성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후 2: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들입니다.

신약 27권 역시 그 책을 마주대한 사람들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어느 소수의 집단이나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백한 책들을 성경(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의 한마디 성경이 성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공동기도제목

1. 대통령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2.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역사를 왜곡하고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회개를 위하여
5. 교회를 공격하는 종자연을 비롯한 반기독교 단체들이 와해되도록
6.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7.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8.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9. 에너지(물,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10. MCM병원 새병동 건축과 안동성소병원을 위하여
11.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2. 신약의 형성

a. 저자

-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엡 3:3-6)

b. 내용

- 여러 지역에 전한 편지임 (엡 1:1)

-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함 (빌 1:18)

- 거짓 복음을 물리침 (갈 1:6)

- 초대 교회의 신앙을 바로잡음 (행 8: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 참된 복음의 말씀임 (행 15: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 것임 (롬 15: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